

부산시 하천의 아이덴티티 구성요소로서 도시 환경색채 연구

최지혜* · 김치용**

*부경대학교 · **동의대학교

A Study on Urban Environmental Color as Identity Component of Busan City River

Ji-hye Choi*, Kim Cheeyong**

*Pukyung National University, **Dong-Eui University

요 약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하천의 복귀를 논의 하는 등 현 시대의 발전에 물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우리의 문화에서 물이라는 매개체가 주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친수공간의 발전이 사람들의 심리에 주는 안정감과 청량감을 준다는 관점에서 도심 속 하천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경관대상에 따른 유형분석과 색채경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색채경관 이미지를 평가하여 색채관리의 필요성과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경관형성의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사례지구의 기본 틀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ABSTRACT

In our environment that is developed centered on the water such a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and discussing the river recovery, the role of medium 'water' has been stressed and the water-friendly space's development has given a sense of stability and refreshment to people's mind. Hence, the importance of river in the city is recognized. Accordingly, this paper is intended to describe the necessity of color management and to suggest the definite landscape formation plan based on it by collecting the type analysis and color landscape by different landscape type and by evaluating the color landscape image.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will become utilized as the basic frame of case zone.

키워드

하천, 도시 환경색채, 디자인

1. 서론

도시공간에서는 인간이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도시의 색채계획도 그러한 맥락에서 계획, 진행 되어야 한다. 과거 도시의 미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전무 했던 시기를 지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보이는 대상에서 느끼는 이미지가 인간심리 안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요소로서 색채계획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듯 도시에서 생활하는 인간을 주체로 하여 고려되어야 하고, 시각적으로는 편안하고 쾌적한 느낌을 주어야 하며, 또한 도시 나름대로의 개성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모두를 위한 활기찬 거리, 품격 있고 쾌적한 환경을 목표로 하는 공통의 청사진이 바로 도시의 색채계획에 있다.

2. 부산 하천에 대한 이론적 배경

2.1 하천역할

도시하천의 기능으로 과거에는 홍수나 하수의 배제를 위한 치수기능과 각 종 용수 확보와 교통수단으로서의 이수기능을 포괄하는 우수기능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우수기능 외, 친수기능, 공간기능, 자연생태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을 만큼 하천의 역할은 다양하며 하천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존의 Open Space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하천의 대부분은 치수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하도와 직립호안의 3면이 콘크리트로 직선화의 획일적 구조물로 이미 조성되어 있어 치수기능 외의 다른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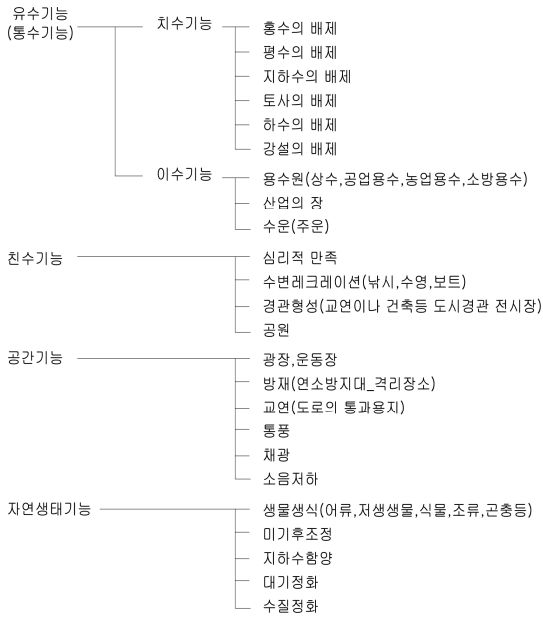


그림 1. 도시하천의 기능

2.2 도시와 하천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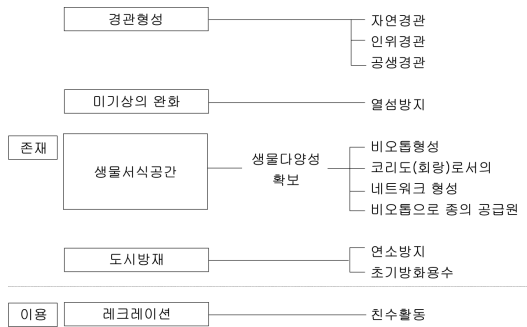


그림 2. 환경자원으로서의 하천기능

2.3 하천 환경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하천의 자연성은 하천을 평가하는 최대의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인위적 간섭에 의한 변모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은 하천 환경정비의 중요한 관점으로 되고 있다. 최근에 자연형 하천으로의 하천정비가 강력히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여태까지의 치수 안전도의 향상과 더불어 '자연형 또는 자연을 배려한' 하천 만들기를 목표로 한 움직임이 고조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지침은, 첫째 하천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연적 환경의 하나이므로 다양한 생태계를 육성해 나간다는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둘째, 보다 양호한 하천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행정과 전문가 등을 포괄하는 연계와 협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셋째,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하천 이용 형태가 출현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기대나 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고유의 문화 계승과 창출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하천 환경의 보전과 새로운 창조의 실현을 위해 '생물의 다양한 서식 및 생물환경의 확보' '양호한 수질과 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 물 순환체계 확보' '하천 주변 지역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접근을 기본방침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1. 물과 녹지의 자연환경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사례

자연상태의 Open Space 확보	자연보전과 자연재생육지의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이전축지, 생산녹지 매입 공공시설 재정비시 Open Space 확보 시가지 재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시 Open Space 확보
	피복지의 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 주차장의 투수화 구소유지의 질적적 녹화 옥상, 벽면녹화
자연의 회복을 위한 지형·지질 등의 자연특성을 살려 Open Space의 자연정질 향상	통합과 연속성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로, 수면의 연속성 확보 우수이용을 위한 가경용 소규모 수생식물 plant 보급
	자연보호구역과 자연재생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중한 자연이 존재하는 구역을 자연 보호구역으로 지정 자연의 재생을 진행하는 구역을 자연재생구역으로 지정
	도시기반정비와 자연의 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 Open Space에 생물이 생육할 수 있도록 수변을 가꿈 수로, 도로, 공면정비에 있어 자연의 재생을 배려하여 사업시행
	물의 확보와 수질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의 이용 지하수나 건축물들의 지하에서 유통하는 지하수 활용 지하수의 연속적 이용을 위한 관측 조사 실시하고도 처리수 이용 하천수와 수로수교환에 의한 수질 향상
네트워크의 정비	다양성과 고유성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적 호안의 개선 재래종 풀물, 수생식물 식재 하천에 어울리는 식재수종의 선정
	순환성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잔토, 콘크리트 조각 재이용 흙, 돌, 수생식물을 이용한 수변형성 수로의 돌식물을 위한 이동 루트화 우수가 침투하기 쉬운 지표면의 확보 식물배재의 재이용
	네트워크 형성고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랑을 형성하는 영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영역
네트워크의 정비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변 등의 정비수법을 5개 형태로 분류하여 제시

3. 부산 하천 현황과 문제점

3.1 부산의 하천 현황

부산에는 총 85개소의 작은 하천이 490.2km에 걸쳐 흐르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부산 연안에 인접하여 대부분 하천연장이 짧고 하상구배가 급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도심의 시가지를 관류하는 지방 2급 하천을 도시하천으로 규정한다면 부산의 도시하천은 약 70%가 유로연장 5km이하의 짧은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천법상의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 및 지방2급 하천으로 구분된다.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며 지방 1급 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다. 국가하천은 낙동강

분류를 포함한 서 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의 4개로 총연장 57.96km이르고 있으며 주로 농·공용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방 2급 하천은 44개소 총연장 192.26km, 소하천은 37개소 47.72km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하천은 대부분 홍수배제와 하·폐수의 배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2 연구대상 하천의 주변 환경 현황

도시하천의 복개율은 하천연장 대비 약21%에 달하며 복개 후 주로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 복개하천 중 부산진구, 동구, 중구 및 서구와 같은 과밀지구의 하천 11개소는 전 구간이 복개되어 지하로 사라져 버렸다.

구·군별 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44개 지방2급 하천 중 총 23개소 하천이 강서구(7개)와 기장군(16개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하천의 대부분이 Open Space로 남아있다. 강서구와 기장군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정에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인해 아직 자연 상태의 하천을 유지하고 있고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의 14개의 지류가 유입되는 온천천은 개수가 100%완료되었고 1.1km에 이르는 복개구간은 도로와 역세권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부산진구 당감동에서 발원하여 서면 중심부를 지나 남구 문현동, 동구 범일동 유역을 관류하면서 부산항7부두로 유입되는 동천의 색채경관 이미지 평가를 해 보고자 한다.

4. 부산 하천의 아이덴티티 구성요소로서 도시 환경색채

4.1 대상지의 선정과 경간분석

동천은 부산진구 당감동 선암사에서 발원하여 서면 중심부를 지나 남구 문현동, 동구 범일동 유역을 관류하면서 부산항 7부두로 유입되고 있다. 동천의 유로연장 4.85km 구간에는 부천천, 호계천, 가야천, 전포천 등의 지방 2급 하천이 유입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광무교 이후 동천3거리에 이르는 약 2km의 미복개 구간은 콘크리트 직립호안으로 확인화 되어 있다. 남부 하수처리장까지의 생활하수를 이송하기위해 21.7km에 해당하는 12개 차집관로 조성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미설치구간인 범일동 주변과 부산진구의 경남공고-범전동까지의 구간은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다. 하천의 최 상류부부터 하천부지를 점용할 밀집된 무허가 건물로부터 하수가 직유입되면서 이 후 광무교까지의 2.85km구간이 복개되어 당감동과 서면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복개 구간이 끝나는 광무교부터 하류부는 하수의 유입이 차단되면서 건전화 현상이 심각하고 바닥은 퇴적물의 부패정도가 심각하며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어 준설과 함께

하상의 생태적 복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범 4호교 부근 지오플레이스와 이마트, 상공회의소가 위치하여 부산시민들이 집적하는 장소이고 범4호교와 범3호교 사이에 문현금융단지 조성되면 이 일대는 부산의 상징 지역으로 탈바꿈 될 것이므로 아름다운 수변경관의 창출과 쾌적한 하천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실이다.

	
동천상류부, 하천구역 내 주거지가 침입하여 경관 불량 및 치수 안정성 상실	이 구간 이후 서면 광무교까지 2.85km구간 복개
	
CGV측의 인도가 하천구역을 점용하고 있는 모습	이 구간 이후 서면 광무교까지 2.85km구간 복개
	
문현금융단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진입로 역시 하천구역을 점용하고 있음	최 간조시 동천 하류부까지 하상이 드러나고 있음
	
만조시 해수가 가득찬 하천구역	하수 미차집 구간으로부터 각종 하·폐수가 유입됨에 따라 수질과 저질오염이 극도로 심각

표 2. 동천의 현황 및 문제점

4.2 대상지의 현황

4.2.1 특성화 지역

동천은 3개의 수원을 갖고 있다. 그 하나는 황령산 및 마비현에서 발원하여 남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지곡 수원지 및 쇠미산에서 시작되는 물줄기이고 다른 하나는 선암사와 당감동 앞을 흐르는 하천을 중심으로 문현동지역의 상업기능과 주거기능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도심 상업기능을 형성하고 있다. 도시경관에 있어서 색채관리는 주위의 지역의 색상을 기본으로 함이 원칙이나 간판이나 옥외광고물 등의 형태나 색채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건물은 기존의 다른 건물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지루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 시설과 같은 스트리트퍼니처는 타 지역과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성화지역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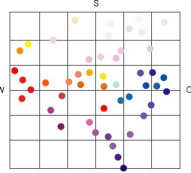


그림 3. 특성화 지역의 칼라이미지

4.2.2 상업 지역

부산의 대표적 재래도매시장인 평화시장과 자유시장인 도매전문 시장을 형성하고 범일동 철물 상가 길에 위치한 공구상가와 E-마트, 홈플러스, CGV영화관등 다양한 상권이 밀집하여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가도가 쉽게 지저분해지기 쉬운 약점을 안고 있다. 오래된 기존 건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겁고 어두운 편이다. 다양한 마감 재료로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해야 하며 주위 색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최근 대형마트 등의 건축으로 어느 정도 주변경관을 선도해 나가고 있으나 기존의 건물들에서 느껴지는 답답함이나 어두운 느낌은 여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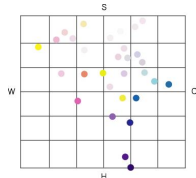


그림 4. 상업지역의 칼라이미지

4.2.3 주거 지역

2001년대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온 문현동 일대는 아파트단지와 단독 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일반 주거지역은 대부분 일률적인 마감재를 사용함으로써 재료의 특성이 어둡고 강한 색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주거지역의 이상적 분위기가 밝고 아늑한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지역은 딱딱한 분위기로 주거지역과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못한 문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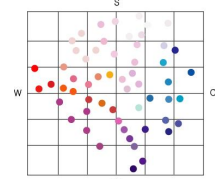


그림 5. 주거지역의 칼라이미지

4.2.4 시설물(교량, 육교, 스트리트퍼니처)

동천에 있는 교량을 중심으로 다리를 표본으로 분석하였고 전체적으로 교량의 상태가 낙후되어 어둡고 형태적 특징이 없이 평범하며 주변경관과 잘 부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색이 되지 않은 교량의 경우 노출된 콘크리트 마감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노후되고 오염된 모습을 드러내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육교 역시 주변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색채의 선택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지역적 특성이나 건축물들의 색채와의 연관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가로등이나 벤치, 쓰레기통, 승강장 등 거리에서 액세서리 역할을 하는 스트리트퍼니처는 그 기능성 못지않게 미관적으로 시민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는 요소이나 현재 스트리트퍼니처는 일관된 모양도 아니고 지역별 특색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각 구별로 특성을 살리고 정비함으로써 보다 개성적이며 활기찬 가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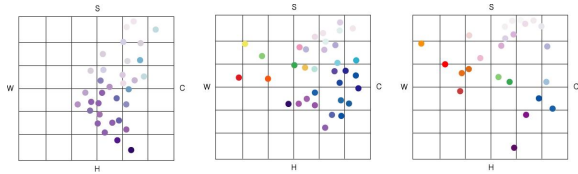


그림 5. 시설물 칼라이미지

5. 결론 및 향후과제

도시경관의 정비관점에서 주변 환경과 건물의 특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통일과 조화를 도모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 이미지를 통일하고 개성 있고 독특한 도시경관의 연출이 필요하다. 무절제한 옥외광고물로 퇴색하지 않도록 하면서 도시 자체의 미를 살릴 수 있도록 색채와 디자인을 개선하여 조화로운 경관 미와 심미적 윤택함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도시경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색채이며 그 배색은 도시의 이미지로 이어진다. 색상은 기초색을 선정한 후 그에 따른 몇 가지 색상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색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지루하지 않고 변화감 있는 경관을 조성토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1] 부산광역시, "시민과 함께 하는 온천천 마스터플랜", 2002
- [2] 부산광역시, "부산의 하천현황", 2002.
- [3] 부산 하천 살리기 시민연대, "부산 하천 살리기를 위한 민·관 공동 워크샵", 2002